

짚은 농기계 사고…신안군 사고감지알람시스템 도입

압해읍 신장마을 설치 운영
농기계 이동시 표지판 송출
사고 발생 시 보호자 전파

전라남도 신안군이 IoT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농기계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신안군은 지난 18일 농기계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IoT 기반 농기계 사고감지 알람시스템'을 압해읍 신장마을에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연육·연도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매년 농기계 교통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 추진하게 됐다.

농기계는 일반차량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위험 사항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떨어져 사고 발생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전남 지역 농기계 사고 동향을 살펴보

면 4~6월 사이에 집중 발생되며 사고 원인으로서는 △노후된 농기계 사용 △운전 미숙 △야간 작업 시 시야 확보 부족 △안전장치 미비 등이 꼽힌다.

사고유형별로는 전복, 충돌, 낙상 끼임 사고 등이며 최근 3년간 2020년 63건, 2021년 74건, 2022년 67건 등 총 204건의 농기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IoT기반 농기계 사고감지알람시스템은 농기계의 이동 정보를 교통안전표지판에 송출해 차량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작업 중 전복사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 등에게 사고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알려 신속한 응급상황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

시스템 운영을 놓고 농업인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김응호 압해읍 신장1리 이장은“트랙터를 가지고 도로주행 시 과속주행 차량으로 불안하고 위험을 느낄 때가 종종 있었으나 농기계 주행 정보 제공으로 안전한 운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신안군이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IoT 기반 농기계사고감지 알람시스템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신안군 제공**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은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

하게 됐다”며 “성과에 따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안전사고 없는 신안군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

진도군, 청사 앞 유희지 활용
‘생활 속 녹색휴게공간’ 조성

전라남도 진도군은 청사 앞에 방치됐 있던 유희지를 최근 자연 친화적인 녹색 휴게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해 군민들에게 개방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유희지는 콘크리트 바닥과 계단만 설치된 단조로운 구조로 활용도가 낮았으나 이번 소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누구나 머물 수 있는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휴식 공간에는 △원형 정원과 안개분수 △계절감 있는 화초류·관목 식재 화단 △다채로운 열대풍 화분과 화사한 관람석(스탠드 계단) 등이 설치됐다.

안개분수는 여름철에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기온 완화 효과와 더불어 시각적 청량감을 제공하는 등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화단에는 루드베키아, 수국, 소철, 남천, 황금사철, 루피너스 등 다양한 수목과 화초류가 식재돼 사계절 내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호피석으로 조성된 관람석은 입체적인 경관과 이용자 편의를 동시에 고려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단순한 공간이 군민 누구나 쉴 수 있는 공공 휴게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접하며 즐기고 체류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백재현 기자**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 개최
강진군, 내달 10일부터 4일간

전라남도 강진군이 오는 7월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2025 제67회 춘계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를 강진군 제2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

24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한국중·고등학교검도연맹이 주관하며, 전국 중·고등학교 110개 팀(중등부 66개, 고등부 44개) 선수 1000명, 관계자 약 300여명, 총 1300여명이 강진을 찾을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관내 숙박시설을 이용하며 4일간 체류해 전체 체류 인원은 약 5200명으로 추산된다.

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약 4억9600만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숙박·음식·관광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대회는 당초 경북 청송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산불 피해로 개최가 무산돼 강진군이 발 빠르게 유치에 나선 결과, 전국단위 청소년 스포츠 대회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검도대회 유치는 강진군의 스포츠 인프라와 대회 유치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대회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참가자 모두가 만족하고, 지역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농촌지도 시범사업 공모
해남군, 내달 18일까지 접수

전라남도 해남군이 2026년 농촌지도 시범사업을 군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오는 7월18일까지 공모를 통한 군민 제안을 받는다.

24일 해남군에 따르면 공모 내용은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특화작목 육성 기술 보급 사업 △농업경영비 절감 및 농업 소득 증대가 기대되는 사업 △기타 우리 군 농업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으로 지역 농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면 분야에 제한 없이 제안이 가능하다. 제안 신청 자격은 농업인, 학습단체, 농업 관련 단체 및 관심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안서는 해남군농업기술센터에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내부 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화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농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을 발굴·적용하기 위해 매년 군민 공모를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제안 공모를 통해 40건을 접수, 이 중 해남형 ESG 실천 버저탄소 생산기술 시범사업 등 17건의 제안사업이 채택해 1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군민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우리 지역 농업을 혁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며 “작은 제안이 해남군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만큼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완도군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를 개최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성공 개최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 등

전라남도 완도군은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완도에서 ‘힐링 총회와 힐링 타임(Healing General Assembly, Healing Time)’이란 주제로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24일 밝혔다.

국제슬로시티연맹에는 전통과 자연을 보전하며 ‘느림의 삶’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목표로 33개국이 가입돼 있다.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열린 올해 총회에는 미국, 이탈리아, 폴란드,

프랑스 등 13개국의 슬로시티 도시 시장 및 대표단이 참가했다.

각국 참가자들은 완도의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에 대한 설명회를 듣고 해양치유와 기후·숲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완도호랑이사나무’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통해 화합의 메시지를 공유하고 국제슬로시티 운동의 창시자인 파울로 사투르니니의 헌정 비빔 샐러드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완도 특산물인 전복과 치킨이 어우러진 ‘복답복답 파티’를 즐겼다.

총회에서는 신규 슬로시티·협력 기관 인증 후 ‘한국 슬로시티 소프트 파워 개념

창조’, ‘슬로시티를 위한 인공지능’, ‘시간 은행과 15분 도시’, ‘삶의 질과 자전거’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완도군과 국제연맹은 ‘지속 가능한 해조류 블루가본’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완도의 해양치유 정책과 슬로시티 가치가 담겼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총회는 완도가 보유한 해양치유와 문화·수산 등 다양한 자원을 세계에 알리는 데없이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슬로시티 완도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영암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참여 기업 모집

세무조사 면제 혜택 등

전라남도 영암군이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2025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여 기업을 모집한다.

24일 영암군에 따르면 어려운 경제 여

건 속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직원 고용 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 방식을 도입해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고용환경 개선자금 1400만원,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우대, 이자 지원 금리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영암군은 제공한다. 영암군에서 2년 이상 영업 중인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지역대표 산업 기업 등이 인증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인증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의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류를 구비하고,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과(061-470-2387)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영암=한교진 기자**



진일보
@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